

광주시-남구, 에너지 클러스터 규모 축소 공방

최영호청장 “대통령 공약... 시가 면적·사업비 줄여 국정위 보고”

광주시 “남구가 제안했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각각 다른 사업”

광주·전남의 상생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광주 남구가 당초 공약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남구가 개별적으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광주시가 발굴해 제안한 ‘광주·전남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9일 기자회견

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전남 글로벌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대폭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구가 제안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남구 승촌동과 나주 금천면 일원 300만평 규모에 사업비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메카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으나 광주시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광주·전남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에서는 그 규모가 100만평에 2조99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축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으나 공약을 제안한 자치단체로서 이를 내버려둘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지역 스스로 대통령 공약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했다”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남구가 승촌보 일대 광주·전남 경계 300만평에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전남과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규모가 커 실현가능성이 낮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상생공약인데 규모를 일부러 축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남구가 자체 용역을 통해 제안했지만, 300만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고, 전남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안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남구가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시와 별개로 남구에서 자체발굴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건의한 것”이라며 “‘광주·전남 대한민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은 시가 자체발굴해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국정기획자문위에 축소 건의했다는 남구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도 기후변화 세부계획’ 조만간 확정

농수산·물관리 등 7개 부문

환경부와 협의 중인 ‘제2차 전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광주 일부 8월8일자 1면)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농동적 기후변화 적응으로 지속가능한 생명의 땅 전남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제2차 시행계획은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 및 재해, 산림 및 생태계, 국토 및 연안, 산업과 에너지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도민 건강 보호, 취약계층 보호 등 24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농산물 재배 방식과 신품종 개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미래 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다.

물관리 및 재난·재해 분야는 기상 이변에 따른 영향분석으로 물관리 분야의 취약성 평가, 자연재해 위험도(흔적도) 조사, 반복 피해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 및 복구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시행계획은 환경부 협의에 앞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 중이며, 최근 계획수립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월드 클래스 300’ 선정 남도금형 평동산단에 신공장 증설 준공식

150억 투입... 80명 고용창출

광주시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남도금형(주)이 9일 오전 평동산단 단지에서 공장 증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도금형은 지난 2월 21일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93년 2월 설립된 남도금형(주)은 사출 금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그린몰드(Green Mold System·가열 금형기술)’라는 시스템 금형을 자체 개발해 국내 및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등 다양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테슬라, 크라이슬러 자동차사에 내·외장 부품을 공급해 지난해 ‘월드 클래스(World Class) 300’에 선정되는 등 지역 선두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

다.

남도금형(주)은 올해 투자협약 체결 이후 150억원을 투입해 최근 평동산단에 신공장을 증설, 도장부품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 증설로 8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열린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JVIS사의 제이슨 무라(Jason Murar) 대표 등 남도금형의 해외 파트너사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배터리를 조성하고 첨단과학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난 7월 대우위니아 광주 이전, 한전 및 전남과 공동으로 200개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협약, 광주형일자리 국책사업 선정 등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수요시위.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1295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육성안 등 논의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10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5차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선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23명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4차 공공기관장 협의회 제안사항인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육성 방안 등 9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017년도 공동 추진과제인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이전기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혁신도시 꽃길(숲)가꾸기 사업 ▲제3

회 빛가람페스티벌 개최 ▲빛가람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사항이나 혁신도시 발전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도 교환한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5개 기관이 이전한 빛가람혁신도시는 내년 농수산식품기술기획위원이 들어오면 총 16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남도, 나주시, 광주·전남 교육청, 나주경찰서, 광주전남연구원 등 23개 기관은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 먹갈치 어획량 급증 ... ‘대풍어’ 예상

어획량 감소가 확인했던 목포 먹갈치가 이번 여름 ‘대박’ 조짐을 보인다.

9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목포 인근 해역 갈치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선창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열흘간 위판된 갈치는 300t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위판량(119t)을 벌써 크게 넘어섰다. ‘봄 조기’, ‘가을 갈치’라는 말대로 갈치 어획량이 가을까지 이어진다면 근래 보기 드문 대풍어가 예상된다 수협은 전했다.

목포 먹갈치로 불리는 갈치는 소비자 선호도 1위로 꼽힐 만큼 인기 있는 어종이지

만 최근 어획이 좋지 않았다. 어획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마리 안팎 1상자(15kg)에 30만~40만원이었던 갈치는 현재 그 절반 수준인 15만~20만원에 거래된다. 목포수협은 40마리 안팎을 상차짜 사야 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3~20마리 소포장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10년 만에 찾아온 풍어에 맞춰 소비 경향에 맞도록 판매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민 소득은 늘리고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업 업무재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1호

이름으로 다가는 **첨단우리병원**

부분마취! 최소절개! 단기입원!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리와 목 질환의 15년간 임상 경험!

척추, 관절, 골절, 정형외과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